

## 2020년 성령강림대축일 교토교구 주교 사목서한

### ■성령은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여, 교토교구의 모든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로 인해, 사순시기부터 부활시기 내내 성당에서 미사가 집전되지 못했고, 신자분들 서로가 직접 만나서 신앙활동도 전혀 하지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집에있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역시 마리아와 함께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최후의 만찬이후 문을 걸어잠그고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용기를 얻은 제자들은, 확신에 가득차 복음선포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펜더믹에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며, 불안과 혼란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신뢰를 더할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 ■올해의 성령강림 대축일은 새로운 생활의 출발의 때 입니다.

성령은 불꽃모양의 혀가 나뉘져 나타나, 제자들 한사람 한사람의 위에 머물렀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말입니다. 교회공동체는 집단이지만, 언제나 단체로 활동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신앙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는 한사람 한사람의 신앙인입니다. 미사(성체)는 그리스도교 생활전체의 원점(근원)이자 정점이라 말 할수 있습니다.

미사에 참가하지 못한 날들은 이 근원, 정점의 가운데에 있는,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들은 보통의 생활을 할수없던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미사를 살아가다」(2004년, 2005년도 오오츠카 주교의 사목교서)라는 것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성령강림 이후, 제자들은 회심하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 하는 일에 전념」(사도행전 2·42)、 「한마음 한뜻이 되어」(사도행전 4·32)、 신자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당분간, 미사참가의 방식에 제한이 있지만, 각자의 내적생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자라고,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올해의 성령강림 대축일은 신앙을 깊게하는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 ■성령은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가져다줍니다.

일본, 더 나아가 전세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점차 일상화하고 있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드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자신이나 자국만의 안전과 안심만을 고집하는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아픔을 나누고, 약자에게 다가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양보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을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휴업이나 자숙중에 도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순간에 임하십니다.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호소하셨듯이, 난민 캠프의 사람들 등, 이전부터 버림받은 상태채로 긴급사태를 맞이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층 곤란과 위험한 경우에 빠진것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성령의 숨결을 받아,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넘어 봉사하는 이웃이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Protect-all-life 「모든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완수합시다.

2020년 5월 31일 성령강림 대축일  
가톨릭 교도교구

✠바로로 오오츠카 요시나오 주교